

이청준 소설의 원체험 탐색구조와 주체화의 문제

—1960년대 초기단편소설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를 중심으로

정 언 희*

요약

이청준의 1960년대 초기 단편소설인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를 살펴보았다.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두 작품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트라우마의 원체험을 추적하는 서사구조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현실과 개인의 삶이 서로 교섭해 들어가는 주체화의 문제이다. 그것들이 개인적인 차원(「퇴원」)으로 펼쳐지든 사회역사적 차원(「병신과 머저리」)을 포함하든 인물들은 언제나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을 품고 있는 것, 그리고 언제나 개인은 무력하다는 것이 두 소설을 관통하는 화두이다. 그 과정에서 인물들이 겪는 고통과 방향은 그 자체가 소설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해결되거나 치유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실존적 질문을 날카롭게 유지하며 자기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정향 짓는 가능성으로 정해져 있다.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 두 작품은, 대타자의 호명을 강하게 의식하는 등장인물을 설정해놓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자기 삶의 문제에 맞닥뜨린 방향과 고뇌를 보여준다. 그것은 조직적 권력과 폭력 앞에 무력한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질문과 유관하다. 여기에 내포된 개인적 주체성의 원리는 자신을 현실의 일부로 간주하는 실존적 성찰의 치열함과 깊이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이청준 소설의 밑바탕을 이루는 중심 테마인 것인데, 두 소설은 이를 전경에 배치하고 있는 초기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해진다.

* 대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조교수

주제어: 「퇴원」, 「병신과 머저리」, 주체화, 원체험의 탐색구조, 계열화, 대타자의 호명, 무력한 개인, 공격성의 인식

목차

1. 서론
- 2-1. 「퇴원」의 원체험과 원체험의 탐색구조
- 2-2. 대타자의 호명과 자아의 공포와 불안
- 3-1. 「병신과 머저리」의 원체험과 원체험의 탐색구조
- 3-2. 구성된 기원과 공격성의 인식
4. 결론

1. 서론

이청준의 단편소설 「퇴원」(1965)과 「병신과 머저리」(1966)를 검토하고자 한다.¹⁾ 두 단편소설은 이청준의 초기소설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퇴원」은 작가의 등단작으로서 통상적으로 등단작이 그렇듯 작가의 특질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점, 「병신과 머저리」는 그 특질이 지닌 문제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트라우마적 사건을 자기 삶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작가적 방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두 작품이 눈길을 끄는 첫 번째 내용은 트라우마의 원체험을 추적하는 서사구조이다. 이것이 「퇴원」에서는 사춘기 주인공이 어른 되기를 재촉하는 아버지의 강제를 대하는 태도가 개인의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병신과 머저리」는 서로 다른 세대의 체험을 가진 형과 동생을 내세워 한국전쟁이라는 사회적 수준의 트라우마를 자기 삶

1) 두 소설 텍스트는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이청준전집1)(문학과지성사, 2010, 7-36면과 170-212면)에 의거하였다. 앞으로 소설을 인용할 경우 서지사항을 생략하고 해당 면수만 밝히기로 한다.

의 문제로 포착하는 것으로 시각이 확대되어 있다. 결국 두 소설은 사회적 현실과 개인의 삶이 서로 교섭해 들어가는 주체화의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하려는 두 번째 내용이 이 주체화의 문제이다. 이 논문이 두 소설을 맞대어 놓고 고찰하는 필요와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두 단편소설의 '원체험 탐색구조'와 그것에 함축된 '주체화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요지이다.

등단작인 『퇴원』을 특별히 주목한 연구를 크게 나누어 두 갈래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전깃불', '공간'('광', '군대', '병원'), '배앓이' 등의 기표에서 (대)타자의 억압과 주체의 불안의식과 자아정체성의 탐색과정을 풀어 밝힌 연구²⁾이다. 둘째는 정신분석적으로 한층 더 들어가 병리적인 주체에 대한 접근을 도모하는 논문³⁾이다. 『병신과 머저리』에 관한 연구도 해석의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소설의 겹구조와 글쓰기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소설의 의미를 추적하는 것인데, 하나는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치유/불치유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⁴⁾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의 체험을 두고 나타나는 세대의식이 강조되었

2) 우찬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불안의식 연구』, 『어문연구』33(2), 2005, 193-196면; 한순미, 『한 소설자의 심리적 기원에 관한 고찰』, 『어문논총』16, 2005, 289-308면; 김동현, 『이청준 소설 <퇴원>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2, 2006, 325-352면; 장영우, 『경험적 사실과 허구적 진실』, 『동악어문학』52, 2009, 267-291면; 김지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징후적 '배앓이'와 타자의 시선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8, 2010, 117-135면.

3) 이현석,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성적 모티프의 담론화 방식 연구』, 『현대소설연구』38, 2008, 293-319면; 김은정, 『질병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청준의 <퇴원> 읽기』, 『우리말글』77, 2018, 245-271면; 박숙자, 『해방 이후 고통의 재현과 병리성』, 『어문논총』75, 2018, 233-258면; 박인성, 『이청준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남성 동성사회성 연구』, 『현대소설연구』75, 2019, 5-38면.

4) 오윤호, 『이청준 소설의 직업 윤리와 소설 쓰기 연구』, 『우리말글』, 2005, 295-318면; 박은태, 『이청준의 1960년대 소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28, 2008, 256면; 송기섭, 『<병신과머저리>의 내면성과 아이러니』, 『현대소설연구』41, 2009, 159-186면; 홍용기, 『소설주체의 탐색방식 연구』, 『인문학연구』76, 2009, 148면; 박진영, 『1960년대 문학주체의 형성과 문체의 변화』,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5(1), 2014, 180-181면.

다고 보는 것⁵⁾이다.

위와 같은 연구들로 말미암아 두 소설의 모호한 의미가 어지간히 가다 이 잡혔다고 생각하면서도, 본고는 보다 세밀한 텍스트 독해를 통해 여전히 남는 의문점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다. 가령 『병신과 머저리』에서 형이 쓰는 내화의 오관모 살해가 살해자를 살해한 윤리적 행위인가 혹은 형의 살해는 왜 당연하게 여겨지는가의 문제부터 두 소설의 극심한 무력감과 방황이 트라우마와 깊은 연관이 있다면 그 트라우마는 가해자의 트라우마인가 피해자의 트라우마인가의 문제까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남는다. 두 소설의 방황과 고뇌는 상당히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방황과 고뇌의 구체성은 떨어지는데, 이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는 그동안 제출된 해석 논리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한편, 두 소설에서 트라우마의 상황으로 자각되는 계열화된 사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거기에 결부된 주인공의 심리적 태도와 소설적 의미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자 한다. 인물이 모호한 채로 깊은 갈등과 방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해석을 요청하는 하나의 의도로 보인다. 그들의 무력감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치열한 자기성찰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들의 무력감이 아버지 혹은 (대)타자를 맞세우고 있다는 점, 아버지 혹은 (대)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질문이 심화되는 양상을 띠는 점을 의미한다. 이청준 소설의 분석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특징적 대목이다.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는, “개인적 주체성의 원리를 배타적으로 절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로서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⁶⁾ 이청준 소설의 기본적인 특성을

5) 정혜경,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액자소설의 변이형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14, 현대문학이론학회, 2000, 325-348면; 김지혜, 『한국전쟁의 원체협과 재구의 변주』, 『어문연구』88, 2016, 218-222면; 서영채, 『가해자의 자리를 향한 열망과 죄책감』, 『한국현대문학연구』50, 2016, 417-452면; 권오룡, 『이카루스의 꿈』, 『병신과 머저리』(이청준전집1)해설, 문학과지성사, 2010, 338-373면.

6) 이광호,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시선과 광기의 정치학』, 『인문학연구』43, 2012, 210면.

상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초기작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것이다.

두 작품의 주체화 방식은 대타자와 관계하는 방식과 유관하고 그것은 복잡한 심리적 태도로 나타난다. 구체적 양상은 소설의 의미와 특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서 유의미하다. 인물들의 방황과 갈등에는 주체화의 원리로서 실천이나 행동의 요구가 포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요구로부터 멀어질 때 그들의 죄의식과 절망은 깊어진다. 이러한 주체화의 전제는 키르케고르의 실존개념과 닮아있다. 키르케고르에게 '실존'이라는 단어는 개체적인 인간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다. '실존한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개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노력하는 개체, 선택하는 개체, 결정하는 개체 등을 의미한 것인데, 그러니까 의지와 선택이라는 의식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실존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⁷⁾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의 '자아상실'은 이렇게 실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지와 선택이라는 실천과 행동의 요구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 동시에 행위의 규율을 내포한다는 것, 스스로 전제하고 설정한 행위와 실천의 요구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 오리무중에 빠져버린 것이라는 점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두 소설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를 대상으로 삼아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려는 취지에서 쓰인다. 본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두 소설의 원체험을 탐색하는 서사구조를 살필 것이다. 둘째는 그 속에 포함되어있는 무력감과 주체화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분석으로 두 주인공의 무력감과 죄의식이 그들의 실존적 질문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실존적 질문이 이청준 소설 세계가 시작되는 첫 자리에서 작가의 세대 감각이 윤곽을 드러내는 첫 형상화라는 점도 자연스럽게 추적될 것이다.

7) 새뮤얼 이복 스텐프·제임스 피저, 이광래 역,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열린책들, 2004, 542-546면 참조.

2-1. 「퇴원」의 원체험과 원체험의 탐색구조

이청준의 등단작 「퇴원」의 원체험은, 주인공의 유년체험으로 소개되는 ‘광 이야기’를 일컫는다. 이 원체험의 중요성은 「퇴원」의 중심서사를 물을 때 부각될 수 있고, 이청준 소설의 전체 맥락과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선을 그려볼 때 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여기 원체험은 프로이트의 원장면을 연상해도 좋겠다. 시나리오나 장면으로 조직된 경험, 다시 말하면 외상과 일으키는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을 의미하는 것⁸⁾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소학교 3학년 때 가을, 나는 그즈음 남몰래 즐기고 있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광에 가득히 쌓아 올린 벚섬 사이에 내 몸이 들어가면 꼭 맞는 틈이 하나 나 있었다. 나는 거기다 몰래 어머니와 누이들의 속옷을 한 가지 두 가지씩 가져다 깔아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곳으로 기어들어 생쥐처럼 낮잠을 자곤 했다. 속옷은 하나같이 부드럽고 기분 좋은 향수 냄새가 났다. 장에서는 그런 옷이 얼마든지 쌓여 있어 내가 한두 가지씩 털어내도 어머니와 누이들은 알아내지를 못했다. 어두컴컴한 그 광 속 굴에 들어앉아 이것저것 부드러운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거기서 흘러나오는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스르르 잠이 들고, 잠이 깨면 다시 생쥐처럼 몰래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어느 날은 거기서 너무 오래 잠이 들어 있다가 아버지가 비춘 전깃불빛을 받고서야 눈을 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광을 나가더니 나를 남겨둔 채 문에다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그 문은 이틀 뒷날 저녁때 열렸다. 나는 광에다 나를 가두어놓은 동안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문이 열렸을 때, 거기 있던 옷가지는 한 오라기도 성한 것이 없이 백 갈래 천 갈래로 찢겨 있었

8) 장 리플랑슈·장 베르트랑 퐁탈리스, 임진수 역, 『정신분석사전』, 열린책들, 2005, 291면.

다. (17-18면)

‘자아망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기억으로 떠올리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다. ‘자아망실증’은 병명으로 비유해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주인공의 정체성 상실과 무력감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위궤양을 핑계 삼아 내과병원의 경영주이자 의사인 친구 준의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나 위궤양보다 더 문제인 것은 윤간호사의 말대로 ‘자아망실증’이다. 병실의 창밖으로 보이는 ‘고장난 시계’처럼 그의 현실적인 삶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 있다. 그의 생활 대부분에 간섭하는 ‘막연한 상념’, ‘무성영화의 영사막’처럼 흐르는 창문의 이미지, ‘좁게 차단된 시야, 같은 병실의 장막환자와 말을 잃은 환자, 이런 것들은 자아망실의 깊이를 짐작하게 하는 장치이자 완전한 자기 망각의 내면풍경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다. 그의 자아망실을 자기 삶의 질문법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맞닥뜨려 있으나 그것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고 생각조차 어려운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소설이 주지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병원의 시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성찰은 밀도 있게 진행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이 말하고 있듯이 “내게는 그 비슷한 데다 무얼 잊어 놓은 기억조차 없는데, 마치 그런 것이라도 찾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에서 어떤 구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인공은 병원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와 동시에 그 자신도 이야기할 자기 서사가 없다. 그런 병실의 풍경은 마치 거대한 판토크의 무대와 같은 셈이다.

다시 정리해서 말해보면 다음과 같다. 병원은 신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실체적 공간의 의미는 사라지고 자아상실과 무력감의 깊이를 재현하는 연극 무대라는 상징적인 공간의 의미를 띤다. 주인공과 친구 준과 윤간호

사는 연극 무대의 주요인물들이다. 그들은 “나의 비밀을 눈치채고” 있지만, 각자 모르는 척 “따로따로 속이고 있는” 배우로 등장한다. 특히 윤간호사는 주인공의 “병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배우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준과 윤간호사는 주인공에게 ‘알고 있다고 가정되는 주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퇴원』의 서사를 포착하는 시선이 극심한 무력감과 혼란에 빠져 있는 주인공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고, 그런 시선에 준과 윤간호사는 알지만 모르는 체하는 인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이자 친구인 준은 위궤양을 앓는 주인공에게 술을 권한다. 술 권하기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위궤양이 일종의 위장이라는 것, 준이 위궤양의 외양적 허위성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치료할 것이 위궤양이 아니라 자아 상실과 무력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 사이의 위장과 수수께끼는 모종의 대화를 함축하고 있다. 주인공에게 전달되는 의미는 두 가지로 분별하여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위궤양보다 진짜 병은 자아 상실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준이 진실을 알고 있는 주체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윤간호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인공과 윤간호사의 수수께끼 문답에서 잘 드러난다.

“거울을 부탁하셨지요?”

말을 뒤집어서 하고는 자기 것인 듯한 손거울을 내주었다. 무엇 때문에 미스 윤이 일부러 거울을 가져다주는지 알 수는 없다. 이제사 거울을 주는 것을 보면, 어젯밤 미스 윤의 말에는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싫었다.

“지금 몇 시쯤 되었습니까?”

종일 바늘 없는 탐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탓인지 문득 나는 필요도 없는 시간을 묻고 있었다.

“제 시계…… 고장인걸요.”

미스 윤은 팔을 들어 시계를 보였다.

“시계가 모조리 고장이군.”

“모조리라뇨?”

나는 대답대신 창밖을 내다보았다. 탐시계에 파관 형광이 돌아나고 있었다.

“그렇군요.”

미스 윤이 등 위에서 다가와 있었다.

“왜 수선하지 않을까?”

“왜 수선해야 하나요?”(23-24면)

수수께끼 문답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윤간호사가 주인공에게 거울이 필요한 시점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 사실을 주인공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윤간호사는 무엇인가를 촉구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 (“왜 수선해야 하나요?”)이 준과 조금 다른 점이지만, 어쨌든 준과 윤간호사는 주인공에게 ‘알고 있다고 추정된 주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주인공은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 신호와 의미를 수신한다. 여전히 무력감에 빠져있기는 하지만(“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싫었다”), 신호와 의미를 수신하고 있음(“문득 나는 필요도 없는 시간을 묻고 있었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일련의 서사적 사건의 연쇄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객관적인 사건 자체보다 오히려 그것의 의미 영역이다. 언어로 구조화됨으로써 생성되는 의미의 영역인 것이데, 가령 소설의 언어-소재, 모티프, 이미지, 대화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면 주인공이 ‘광 사건’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맥락화하고 있는지, 즉 사건이 주체에 끼친 효과를 말할 수 있다. 『퇴원』의 주인공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아망실이라는 서사적 현재의 상황에서 ‘광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광 사건’을 계열화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광 사건’은 다른 수많은 일상의 사건 속에 파묻혀 아무 의미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었으나, 아무 의미도 아닌 것이었다가 자아망실과 무력감으로 기호화되고 코드화된 현실 속 의미의 장으로 솟아오르는 것이다.⁹⁾ 그러니까 그의 기억이 도달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살피는 상황에서 ‘광 사건’이 원장면으로 의미화되는 셈이다. 이른바 『퇴원』의 원 체험-원장면의 탐색구조이다.

2-2. 대타자의 호명과 자아의 공포와 불안

다시 프로이트의 원장면 개념을 빌어 설명하면, 원장면이 사후에야 주체에게 이해되고 해석된다는 사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급적 기억에서 원장면으로 접근하려면 적어도 현실에서 어떤 단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환기될 필요가 있다. 『퇴원』의 서사적 현실이 제공하는 단서는 준의 ‘어른스러움’ 혹은 ‘어른스러운’ 준의 존재이다. 준은 주인공보다 항상 어른이었고, 주인공은 항상 자기보다 어른인 준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 군대밖에는 준에게서 멀리 가버릴 쉬운 곳이 없어서 주인공은 징집년이 훨씬 지나버린 나이로 군대에 지원을 했다. 자신을 스스로 격리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제대한 후에 그가 또다시 찾아간 곳은 준의 병원이었다. 준어른은 주인공이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가능하지도 않지만 혹시 벗어나더라도 주체가 다시 찾거나 요구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에서 대타자의 지위를 갖는 셈이다. ‘어른’은 ‘광 사건’을 계열화하고 의미화하는 핵심기표가 된다.

앞에서 인용문을 제시하였지만, ‘광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은 소학교 3학년인 가을 어느 날 습관대로 학교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광 속에서 어머니와 누이의 속옷을 한두 가지씩 가져다 깔아놓고 잠이

9) 이정우, 『사건의 철학』, 그린비, 2011, 141면과 150면.

들었다. 그러다가 전깃불을 들고 온 아버지에게 들켰다. 그는 이틀 동안 굶은 채 광속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로 추정되는 대로 정리하면 이와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사건이 주인공에게 어떻게 경험되었으며 어떤 심리적 효과를 일으켰는가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안락한 세계, 즉 자궁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꼭 맞는 틈”에서 어머니의 ‘항수’를 맡고 잠들어 있는,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없는 순간에 주인공은 이제 나오라는 명령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목소리의 의미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제 나오거라’(“너는 제구실도 한번 못해 볼 게다”, 17면)라는 재촉의 의미쯤일 텐데, ‘전깃불빛’이 암시하듯 그것은 방심한 얼굴에 찬물세례를 받은 듯한 돌연한 폭력의 형식으로 경험된다. 불안과 공포를 동반한 억압이자 강요의 기호로 각인되는 것이다.

둘째는 서사적 맥락에서 추론할 수 있는 주인공의 심리감정이다. 우선은 수치심과 굴욕감과 낭패감을 들 수 있고, 다음은 공포심과 불안을 말할 수 있으며, 또 그 다음으로 세상과 어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느끼는 극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이며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고개를 드는 분노와 반발심을 꼽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호명에 부응해야 한다는 모종의 강박적 초조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른바 ‘대상관계의 태도’와 ‘결부된 감정과 정서’가 중층적이고 양가적으로 뒤얽혀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이는 특히 “나는 광에다 나를 가두어놓은 동안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문이 열렸을 때, 거기 있던 옷가지는 한 오라기도 성한 것이 없이 백 갈래 천 갈래로 찢겨 있었다”는 진술에서 매우 압축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 아버지는 현실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주인공이 내사한 아버지-어른으로서 초자아에 상응한다.

원체험-원장면의 사후성은 과거의 외상적인 기억이나 인상 등이 사후에 어떤 경험과 결합되어 수정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의미

를 함축한다.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⁰⁾ 그러니까 『퇴원』의 원체험은 서사적 계열화와 의미화라는 맥락 속에서 ‘발견’된 ‘원인-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서사적 현재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이다. 주인공은 일찍이 가출을 감행하였고 원양어선을 타다가 입대를 하였으며 하는 일마다 “만관 허탕”으로 실패하고,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매우 막연한 상태에 놓여 있다. 자기 요구가 용납되기는커녕 이제는 행동의 욕망마저 사라져버렸다는 자기 인식을 고려할 때 다음의 인용문은 결코 우연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다.

청년에게는 권유가 처음부터 소용없는 것이었다. 자기 요구라는 것, 그것을 청년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요구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용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그 요구대로 될 수가 없었다.(33면)

언어가 완전히 소멸된 거기에는 슬프도록 강한 행동의 욕망과 향수만이 꿈틀거렸다. 허나 나에게는 이미 그 욕망마저도 죽어버리고 없었다. 완전한 자기 망각. 그렇게 나는 시체처럼 여기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이다.(34면)

주인공의 관점에서 보자면, 극심한 무력감은 그것의 원형을 간직한 ‘내력 깊은 이야기’에서부터 설명해야 한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 가보면, 꼬마 주인공은 문을 두드리거나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포와 수치심과 굴욕감에 사로잡힌 꼬마 주인공은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을 허기와 공포와 외로움으로 버티면서 주인공은 분노와

10) 홍준기, 『폭력에 대한 정신분석적 성찰: 개인과 사회 속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식의 비평』18권, 2015, 89면.

무기력과 그 모든 것에 대한 반발심에 휩싸였을 것이다. 이런 광속/내면의 상황, 즉 강요당한 침묵의 공포와 수치와 좌절과 무력감과 분노와 반발심 등을 아버지가 섬세하게 읽었을 리 만무하고 오히려 아버지는 ‘제구실도 못하고’, ‘배고픈 줄도 모르는’ 무능력한 아이로 여긴다. 거기에 뒤이어지는 주인공의 실패와 좌절(‘만관 허탕’)과 불규칙한 생활과 위계양은, 부의 심급에서 발신되는 초자아의 신호에 반응하는 강박적인 초조감의 현실적 기호들로 이해되는 것이다. ‘광 사건’은 이들 현실적 기호에서부터 반추되는 ‘내력 깊은 이야기’이며, 원체험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주인공이 장막환자의 내면을 해석하는, 기실은 주인공 자신의 내면을 투사 기술한 첫 번째 인용문은, 이와 같은 문맥과 맞물려 있다. 그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자기 요구’가 남아 있다. 여기에서 ‘자기 요구’라는 것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면 이렇다. 주인공의 방황과 갈등에는 실천과 행동의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 말하자면 실천과 행동의 ‘내용 선택’ 차원에서 빚어지는 방황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의 ‘행위 가능성’ 차원에서 생기는 고뇌이다. 그러나 주인공-주체에게 실천과 행동이 용납되지 않고 있으며, 그는 그런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의 ‘완전한 자기 망각’은 이러한 정도의 극심한 무력감의 표현이며 동시에 깊은 고뇌와 방황 그 자체를 강조한다. 주인공은 “행동의 욕망과 향수만이 꿈틀”거릴 뿐이거나 “그 욕망마저도 죽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회미할 뿐이고, 이 소설은 그런 상태를 “완전한 자기 망각”이라고 이름 짓는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요약되는 질문을 포함하는 등단작 『퇴원』은 이청준의 소설 세계 전체와 연결되는 출발점을 보여준다. 『퇴원』의 소설적 외양은 지극히 개인적인 인물의 고뇌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작가 이청준이 의식한 60년대의 세대적 성격이 깔려있는 것이다. 세계가 열렸다가 닫혀버린 그 사이에 끼인 세대로서 압도적인 대타자의 권력과 그 앞에서 무력해진 개인의 실존적인 주체의 문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소설 『병신과 머저리』

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이되 다른 양상을 띠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3-1. 「병신과 머저리」의 원체험과 원체험의 탐색구조

미리 이야기하면 『병신과 머저리』(1966)의 원체험은 ‘노루사냥’ 사건을 일컫는다. 형이 소년 시절에 겪은 체험인데, 이 체험은 사후에 그러니까 서사적 현재에 일어난 수술 소녀의 죽음에 의해서 촉발되고 10년 전 패잔병으로 탈출한 사건의 내막을 기억하는 회상 과정에서 소환된다. 형이 가진 트라우마의 중심에는 한국전쟁에서 패잔병으로 탈출한 내막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비해 ‘노루사냥’은 탈출의 내막을 밝히는 소설/기억의 첫 페이지를 차지한다. 말하자면 트라우마의 자초지종을 더듬는 소설/기억을 상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노루사냥’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형의 입장에서 노루사냥이 상처로 계열화되는 사건들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원체험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노루사냥’의 메시지를 따지고 계열화된 다른 사건들과의 심리 구조적 맥락을 검토하는 일은 『병신과 머저리』의 중심 서사를 밝히는 일에 해당한다.

『병신과 머저리』는 의사인 형의 이야기와 화가인 동생의 이야기가 대위법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서사체를 구성하는 작품이다. 두 서사 전체를 포착하고 아우르는 시선은 동생 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다. 표면적으로 동생에게 맡겨진 역할은 애인을 붙잡지 못한 채 애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지만 그 역시 존재의 형식과 관련하여 고뇌와 방황을 겪고 있는 인물이다. 동생은 기이하고 문제적인 행동을 하는 형을 관찰하고 전달하는 단순한 서술 주체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고뇌하는 시선의 주체로서 서사의 의미 생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대략 내용은 이러하다. 형은 의무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해내도록 무슨 계시라도 받은 사람”처럼 많은 수술환자를 마다하지 않는 솜씨 좋은 개업의이다. 최근에 형의 수술을 받은 열 살배기 소녀 환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어났다. 형의 수술 탓이라고 하기 어려운 ‘소녀의 죽음’이다. 그런데 형은 이후로 병원 일을 등한시하고 두문불출하거나 밤에는 술에 취해 들어온다. 형이 방에 들어박혀 있을 때는 소설을 쓴다. 형을 괴롭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동생은 이런 기이한 형의 모습을 해석하기도 하고 형의 소설 쓰기에 개입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동생은 모든 것을 알고 조망할 수 있는 ‘버드 아이’의 서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역시 책임과 방관의 문제에 맞서 자신의 얼굴을 고민하는 주관적인 시선의 서술자이다. 이 소설은 형의 방황과 동생의 고뇌가 중첩되고 교호함으로써 전체 서사를 구성하는 작품이다. 형과 동생의 병렬서사는 타자를 앞에 둔 존재의 형식에 관한 세대적 질문을 함께 던지고 있는 셈인데, 이상의 내용이 소설의 주요 즐거리이다.

이렇게 요약되는 소설의 핵심은 형의 과거 이야기, 즉 ‘폐잔과 탈출’의 삽화이다. 이 삽화는 형이 쓰는 소설(‘소설의 내화’)에 등장한다. 등장인물은 형과 김일병과 오관모, 이렇게 세 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형의 소설은 ‘폐잔과 탈출’의 경위를 객관적 차원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주체의 드라마이자 강렬한 심리의 기록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 삽화의 의미는 그것과 어떤 사건들이 이웃하는가의 계열화 문제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형이 자신의 강렬한 체험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를 살피는 일은 트라우마의 기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로 수렴되는 까닭이다. 현재의 트라우마 상황은 계열화된 사건들의 집합¹¹⁾으로 자각된다. 형이 어린 시절에 따라나섰던 ‘노루사냥은 트라

11) 하나의 사건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건들과 계열화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자는 하나의 단순한 표면효과(=무의미)이지만, 후자는 일정한 의미를 띠게 된다. 하나의 사건은 무의미이자 의미이다(이정우, 『사건의 철학』, 143-144면). 단순한 표면효과(무의미)로 볼 경우 수술소녀의 죽음은 한 소녀의 숨이 멎었다는 자연의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지만, 이

우마의 최초 사건으로 인지되는 사건이고, 개업의로 겪은 '수술소녀의 죽음'은 그의 트라우마를 환기하고 도발하는 마지막 계열사건이다.

수술 소녀의 죽음은 형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소설로 쓰게 되는 계기가 되고, 형은 노루사냥의 경험을 소설의 서두로 삼는다. 형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려면 노루사냥의 삽화로 거슬러 올라가 그것부터 되짚어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간주된다.

눈이 산들을 하얗게 덮은 어느 겨울날, 방학을 맞아 고향 마을로 돌아와 있던 <내>(형이 쓰는 소설의 일인칭 화자인 형:인용자)가 그 물이꾼들에 끼어 함께 사냥을 따라나선 일이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한낮이기를 때까지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었다. <나>는 다른 어른 한 사람과 함께 어느 능선 부근 바위틈에서 언 밥으로 시장기를 쫓고 있었다. 그때 능선 너머에서 갑자기 한 발의 총소리가 울려왔다. 그 총소리에 대해서 형은 이렇게 쓰고 있었다.

<나는 총소리를 듣자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것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았다. 싸늘한 음향 분명한 살의와 비정이 담긴 그 음향이 넓은 설원을 메아리쳐 올 때, 나는 부질없는 호기심에 끌려 사냥을 따라나선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총알은 노루를 맞히지 못했다. 상처를 입은 노루는 설원에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사냥꾼과 물이꾼은 눈 위에 방울방울 번진 핏자국을 따라 노루를 쫓았다. 핏자국을 따라가면 어디엔가 노루가 피를 쏟고 쓰러져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흰 눈을 선연하게 물들이고 있는 핏빛에 가슴을 섬뜩거리며 마치못해 일행을 쫓고 있었다. …(중략)…그러나 <나>는 망설이기만 할 뿐 가슴을 두근거리며 해가 저물 때까지도 일행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178-179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계열화됨으로써 주인공의 트라우마라는 의미의 장에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띠게 된다.

인용문은 ‘노루사냥’ 장면이다. 특이하게도 동생은 형의 소설을 읽을 시점(始點)에 이 장면을 무심코 지나쳤다가 소설의 어느 중간을 읽다 ‘문득 긴장하여’ 되돌아와 읽기 시작했다.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는 형의 트라우마 상황에서 노루사냥이 왜 중요한가이고 둘째는 동생은 무엇을 발견했기에 소설의 처음으로 돌아왔는가이다. 단서는 훗날 ‘폐잔과 탈출의 삽화’에서 재생되는 이미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살의와 비정’이 담긴 싸늘한 총소리이고 둘째는 ‘흰 눈에 선연하게 물들이고 있는 핏빛’의 대비이다. 두 이미지는 오관모가 김일병을 향해 쏜 ‘싸늘한 총소리’와 김일병이 흘렸을 ‘눈 위의 핏자국’과 정확하게 겹쳐진다. 그런데 중첩된 두 이미지가 두 삽화의 계열화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의미의 전부라고 하기에 는 미진한 점이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의미이고 그 이면에 한 겹의 의미가 더 있다고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후회’와 ‘망설임’이라는 이중적 태도에 내포되어있는 형의 무의식적 태도와 맞물려 있다. 계열화된 두 삽화에서 문체적인 것은 두 이미지가 형의 마음속 깊이 웅크리고 있던 어떤 충동을 일깨우고 그것을 행동화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폭력의 충동일 텐데, 오관모의 총소리를 듣고 따라 나갔다는 형의 다음 문장에서 드러난다. “〈오늘은 그 노루를 보고 말겠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노루를〉, 〈날더러는 구경만 하라고? 그렇지. 잔치는 언제나 너희들뿐이었지〉 이런 말들이 〈내〉가 그 〈핏자국〉을 따라가는 동안에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203면). 동생에게 중개되지 않은 형의 생생한 이목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이르면 노루사냥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호기심’과 ‘후회’와 ‘망설임’의 감정 언어에 숨겨진 욕망을 이해할 수 있다.

형의 소설에 의하면 어린 형은 호기심에 노루사냥을 따라나섰다. 종일 토록 노루 구경을 하지 못하고 지친 몸을 쉬던 차에 능선 너머에서 사냥꾼의 총소리를 들었다. 총소리의 싸늘함과 비정함에 가슴이 섬뜩해지고 부질없는 호기심이 후회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형은

“망설이기만 할 뿐 가슴을 두근거리며 해가 저물 때까지도 일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인데, 그의 ‘호기심’과 ‘후회’와 ‘망설임’의 갈피에는 어린 형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혹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폭력 충동이 중층적으로 깔려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살의와 비정함에 대한 공포와 무력한 반발이 삽화의 표면적인 층위에 드러난 의미라면, 이면에는 살의와 비정함과 가학성의 향유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내면의 양가적 감정과 이중적 태도를 추적하는 것이 형의 계열화 작업(소설쓰기)이며 그의 소설쓰기는 가학성과 얽힌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건이 ‘김일병과 오관모의 기이한 싸움’과 싸움을 바라보는 ‘형의 시선’이다.

〈나〉는 다음에도 여러 번 그 기이한 싸움을 구경했다. 그때마다 〈나〉는 김일병의 〈파란 빛〉이 지나가는 눈을 지키면서 속으로 관모의 매질에 힘을 주고 있었다. 그런 때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상한 흥분과 초조함에 몸을 떨면서 더 세계 더 세계 하고 관모의 매질을 재촉했다.(186면)

위의 삽화는 세 병사가 낙오하기 전의 장면이다. 오관모와 김일병의 기이한 싸움을 바라보는 형의 시선이 부각되어 있다. 언제나 대검을 손에 들고 영내를 다니는 오관모는 신병이 들어오면 세모눈을 치뜨고 시비를 걸곤 하는, “독 오른 배암 같은 인상”의 사내였다. 신병으로 온 김일병은 “얼굴의 선이 여자처럼 곱고 살이 두꺼운 편”인 유순한 얼굴이었고 “콧대가 좀 고집스럽게 높”았을 뿐이었다.(184-185면)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약이 바짝 오른 오관모가 김일병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형의 시각으로 보아 그들의 싸움이 기이한 것은 오관모의 매질을 받아내는 김일병의 “무서울 정도로 가지런한 자세”와 “파란 눈빛”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김일병이 오관모에 일방적으로 매질을 당하고 있으나 사실상 김일병은 오관모의 매질에 굴복한 적이 없다. 되레 오관모가 바짝 약이 올라 거의 울상이 되어 있으니 그것이 기이한 싸움이 되고 마는 것이다. 가학자와 피학자 사이에 벌이는 정해진 승부처럼 보였던 싸움이 누가 가학자이고 누가 피학자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형국이 된 셈이다.

이 장면의 또 다른 핵심은 그들의 기이한 싸움을 바라보는 형의 시선에 있다. 그것은 형이 오관모에게 '투사적 동일시'¹²⁾를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형은 김일병의 찌르는 듯한 '과란 눈빛'에서 촉발된 가학성을 잔혹하고 외설적인 오관모에 투사함으로써 오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오관모라면...'의 환상으로 형은 자신의 가학성을 오관모의 폭력과 동일시하고 그럼으로써 오관모의 지위와 성격을 차지한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가학적 폭력성을 발견하게 된 주체의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주체는 오관모(가학성)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의식하자마자 그 대상(가학적 폭력)을 통제할 필요성이 생기며, 또한 그 대상에 계속 간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통제의 필요성과 지배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또 다른 특별한 불안, 즉 분열적 두려움¹³⁾을 야기한다. 주목할 점은 이 불안이 생명을 구하는 방향으로 형의 삶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형의 이후 삶이 그것의 똑똑한 증거가 된다. 보다 세밀한 독해를 위해 이 점을 후속기술로 넘겨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12)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identification)는 멜라니 클라인이 '편집-분열적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하나의 새로운 심리 기제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한나 시겔의 『멜라니 클라인』(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133-137면) 참조.

13) 한나 시겔에 의하면 '분열적 두려움'은 투사적 동일시가 지배적인 심리기제로 작용할 때 발생한다.(앞의 책, 135면).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이 분열이 불안을 발생시키는 상황과 그것에 대한 일련의 방어메커니즘과의 결합이라는 클라인의 말을 인용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부각시켰다.(줄리아 크리스테바, 박선영 역, 『정신병, 모친살해, 그리고 창조성: 멜라니 클라인』, 아난케, 2006, 136-138면)

3-2. 구성된 기원과 공격성의 인식

사실 소설은 동생의 시각에 의해 형이 누군가를 죽였고 죽은 '그는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화 전체의 초점을 맞춰 나가는 형의 치밀한 전개를 보면 이는 일종의 맥거핀인 셈이다. 형의 이야기 초점은 말하자면 인간/자신의 공격성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다.

소설에 '전상자'라는 언급도 있거니와 형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트라우마는 전쟁이라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폭력 상황이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쟁과 폭력성이 깊은 상관성을 가진다는 점, 전쟁의 폭력성은 개인의 삶과 일상의 관계로 복잡하게 내면화된다는 점, 전쟁 상황은 폭력적 에너지의 근원적인 힘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¹⁴⁾ 그러나 개인의 삶의 문제로 파고 들어갈 때, 즉 전쟁 경험을 자신의 삶으로 주체화하는 문제에서 볼 때 일률적으로 전쟁이 근원적인 유일한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전쟁을 겪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없던 가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또한 폭력성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을 누구나 스스로 인식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현실적 삶의 상황과 정서적 삶의 구조가 결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텐데, 이때 형의 태도는 문제적이라고 할 만하다. 말하자면 형이 전쟁을 자신의 삶으로 주체화하는 방식인 것인데, 이는 그가 쓰는 소설(내화)에 잘 드러난다.

형이 트라우마의 성찰을 '노루사냥'이라는 일상 폭력의 경험으로 소급하는 것, 그리고 더 강화되고 더 압도적인 폭력적 전쟁과 잔혹한 오락으로 추급하는 것은 스스로를 피해자의 자리에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보다 오히려 그는 가해자의 자리에서 트라우마를 고통스럽게 인식한다.

14) 선민서의 「6.25 참전자 혹은 타락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현대소설연구』79, 2020, 339-367면)은 전쟁서사라는 관점에서 「병신과 머저리」를 타락이라는 자신을 상실한 '대상상실의 서사'로 고찰하였다.

어린 형이 노루사냥의 물이꾼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혹은 형이 한국전쟁에 의무병으로 참전하지 않았다면, 혹은 오관모나 김일병을 만나지 않았다면 형에 내재해 있는 죽음의 충동(공격성)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는 표면적으로는 사냥과 전쟁/오관모에 윤리적 책임을 묻는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심층적으로는 가해자의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죄의식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정향 지어진 자기 삶과 자기 얼굴을 성찰하는 자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정신분석의 인식 덕분에, 그보다 앞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에서 인간의 악과 공격성은 마음의 일부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심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원적인 악이 인식되었다고 해서 내면의 악을 뿌리째 뽑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거지 소녀 삽화가 주의를 끈다. 형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소설을 쓰기 시작할 만큼 만만치 않은 의미를 가지지만, 사건의 내막은 단순하다. 동생과 함께 화실을 나와 화선 근처를 지나면서 형이 거지 소녀가 내민 손을 '무심한 듯 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단순한 이 삽화는 수술 소녀의 죽음과 맞대어 살필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수술 소녀의 죽음이 자기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변연히 알고 있는 형에게 중요했던 것은 수술 소녀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칼끝이 그 소녀의 몸에 닿은 후에 소녀의 숨이 끊어"(183면)진 것이라는 점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거지 소녀 사건이 형의 내면에 뿌리를 틀고 있는 '악'을 재확인하는 장면이라면, 수술 소녀의 죽음은 형의 분열적 불안의 삶이 선과 악 사이에서 창조하는 격렬한 단절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두 사건이 빚어내는 장면은 형의 결백한 가해자 의식을 명시하는 대목이다. 동생은 소녀 거지에 대한 형의 행동을 두고 "분명 형은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 같"(183면)다는 암시적인 말을 하거니와, 소녀 거지에 대한 형의 행동은 단순한 서사적 우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생의 논평도 무심코 발화된 문장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이 가진 캐릭터의 문제성은 다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자기 악의 인식이 자기 내면의 악을 도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악의 '인식'이 자기 삶을 좋은 쪽으로 견인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책임 아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삶의 방식을 견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형이 파란 눈빛을 잃은 김일병이 죽어도 좋다고 판정한 '관념 살인'과 의무병이자 인간으로서 김일병의 죽음을 어찌지 못한 '무기력의 죄의식', 개업의로서 아무리 많은 환자를 살려도 그에 만족할 수 없던 '의무의 감옥 같은 삶', 누가 보아도 예상되었을 수술 소녀의 죽음에 '방황하는 것'은 자기 악에 대한 불안의 방어적 강박으로 간주할 만하다. 자기 내면의 악의 인식이 인간의 향상의지로 전회하는 것이자 동시에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윤리적 행동의 과도한 이상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 책임 아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형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주체화의 방식이다. 전쟁이라는 역사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에 대해 주체의 자리를 포기하고 무력하게 순응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대타자를 배제하고 주체화의 방식을 절대화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른바 자기 삶을 사회역사적 맥락과 분리하지 않고 전쟁조차 자기 삶의 맥락으로 끌어안는 책임의식일 것인데, 그것은 트라우마의 기원을 구성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구성된 기원 혹은 기원의 구성은 사회역사적 사건이 개인 삶의 차원으로 엮여 들어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 아래 산다는 것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것이다. 형은 개인이 책임질 일이 없는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괴투성이 얼굴'을 가해자의 자리에서 인식한다. 형의 오관모 살해가 스스로 가해자이자 박해자로 인식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상상적 행위로 이해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과 맞물려 있다. 그런데 내면의 악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시인했다고 해서 형의 상처가 씻은 듯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형의 내면은 앞으로도 때때로 '검고 무거운 것에 부딪혀 지금처럼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형은 고통과 방

황을 견디면서 곧 일과 삶을 이어나갈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형이 자기 삶을 책임지도록 설정해놓았다. 이청준의 전체 소설에서 고통과 방황은 자기 삶을 사는 주체의 표지이기도 하다. 작가 이청준은 『병신과 머저리』에 걸려 있는 윤리적 실존 문제와 서사적 윤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 이룬다면, 『병신과 머저리』의 격자구조가 단순히 소설 속에 소설을 포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화(과거)를 반성하는 소설(현재)로서 의미가 상호교환되는 구조임을 이해할 수 있다. 동생은 형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로서 동생이 관심을 갖는 형의 특이한 내력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욱 동생을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그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인간의 근원에 대한 예술적 탐구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에 대한 강한 예감을 구현하는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다. 동생은 자신의 책임과 방관의 문제를 형의 책임과 방관에 견중으로써 소설 『병신과 머저리』의 의미를 하나로 풀어내고 있다. 형의 방향과 동생의 고뇌가 함께 겹치고 서로 반발하면서 '자기 얼굴'이라는 모티프를 끌어내는 것이다.

화자인 동생은 사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연인인 혜인을 떠나보낸다. 혜인과 헤어지고 나서 동생은 “갑자기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자 한다. ‘갑자기’라는 부사어만 제시될 뿐이고 수궁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소설은 밝혀놓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중요해지는 것은 동생이 “어떤 얼굴을 강하게 예감”하고 있다는 사실과 “아직은 내가 그것과 만날 수 없을 뿐”이라는 사실이다(181면). 예감하는 얼굴이란 소설 텍스트에 의거하면 선과 악의 무한한 배합의 스펙트럼 위에 펼쳐진 수많은 분화의 한 지점에서 하나의 얼굴과 하나의 진실을 찍어내는 것일 텐데, 그것은 한순간의 결단이나 어떤 관념으로 길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체와 대면하는 아픈 과정에서 드러나고 명료해지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생은 ‘자기 얼굴’을 마주하기가 고통스럽고 또한 그것을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내지 않는다. 동생의 이러한 심리적 처지와 태도는 형의 용기 있는

자기 얼굴의 대면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형은 뼈아프지만 사실로써 관념의 술한 회의를 파괴하고 존재가 무너지는 듯하지만 그것이 되레 자기 삶을 견지하는 힘이 되고 있다면, 동생은 ‘아픔만이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곳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 없는 무력감에 빠져있는 것이다. 동생의 ‘환부 없는 아픔’과 무력감은 『퇴원』의 주인공이 겪는 자아망실과 무력감의 닮은꼴로 간주할 만하다. 보이지 않는 얼굴 혹은 인정하기 두려운 얼굴(“창문의 이미지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한층 무겁게 밀착해왔다. 그러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퇴원』, 32면)의 고통이라는 점,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밖에”(『병신과 머저리』, 200면) 찾을 수 없다는 점은 두 인물이 동류의 인물이면서 이청준 문학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인물임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병신과 머저리』는 두 가지의 커다란 의미항을 지니고 있는 소설이다. 하나는 두 인물이 공유하는 방관과 책임의 키워드로 나타나는데, 타자의 호명을 함축한 실존적 주체화의 문제와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주체의 고뇌와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타자의 호명을 자각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타자 앞에서 개인은 언제나 무력하다는 점과 관련된다. 무력한 개인은 사는 동안 자기 영혼의 얼굴(“무엇을 할 수 있는가)을 찾기 위한 질문을 둘러싸고 끝나지 않을 자기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에 관한 한 『병신과 머저리』는 형의 태도와 동생의 태도로 대변되는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준다. 거기에는 형과 아우가 각자 선택한 의식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에 따른 세대의 차이가 함축되어 있다. 작가는 형으로써 반성의 ‘무서운 창조력’과 동생으로써 무기력의 ‘간헐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자기 세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소설적 방식을 보여준 셈이다. 두 가지 의미항은 이청준 소설의 전체 세계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병신과 머저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초기작이다.

4. 결론

이상으로 두 단편소설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를 살펴보았다. 두 작품의 분석에서 두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첫 번째는 트라우마의 원체험을 추적하는 서사구조이다. 『퇴원』의 광 속 사건과 『병신과 머저리』의 노루사냥 사건이 원체험이 되는 것인데, 이들 사건은 두 인물의 트라우마 상황을 이루는 계열화된 사건의 집합으로 의미화된 사건이자 두 인물이 자기 삶의 방식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인식된 '구성된 기원'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현실과 개인의 삶이 서로 교섭해 들어가는 주체화의 문제이다. 그들의 고통과 방황이 개인적인 차원(『퇴원』)으로 펼쳐지든 사회적 사적 차원(『병신과 머저리』)을 포함하든 인물들은 언제나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을 품고 있는 것, 그리고 언제나 개인은 무력하다는 것이 두 소설을 관통하는 화두이다. 그런 맥락에서 『퇴원』의 주인공과 『병신과 머저리』의 형과 동생은 '드러나지 않는 얼굴' 혹은 '인정하기 두려운 얼굴'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방황과 고뇌를 겪는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다. 그들의 고통과 방황은 그 자체가 소설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해결되거나 치유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실존적 질문을 날카롭게 유지하며 자기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정향 짓는 가능성으로 정해져 있다.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 두 작품은, 이처럼 대/타자의 호명을 강하게 의식하는 등장인물을 설정해놓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자기 삶의 문제에 맞닥뜨린 방황과 고뇌를 보여준다. 그것은 무력한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질문과 유관하다. 여기에 내포된 개인적 주체성의 원리는 자신을 현실의 일부로 간주하는 실존적 성찰의 치열함과 깊이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이청준 소설의 밑바탕을 이루는 중심테마인 것인데, 두 소설은 이를 전경에 배치하고 있는 초기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해진다. 그러니까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는 이청준 문학의 기본적인 특성을 헤아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작품이다.

| 참고문헌 |

-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이청준전집1), 문학과지성사, 2010, 7-36면과 170-212면.
- 권오룡, 『이카루스의 꿈』,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해설, 문학과지성사, 2010, 338-373면.
- 김동현, 『이청준 소설 〈퇴원〉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2, 2006, 325-352면.
- 김은정, 『질병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청준의 〈퇴원〉 읽기』, 『우리말글』77, 2018, 245-271면.
- 김지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징후적 ‘배앓이’와 타자의 시선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8, 2010, 117-135면.
- 김지혜, 『한국전쟁의 원체험과 재구의 변주』, 『어문연구』88, 2016, 218-222면.
- 박숙자, 『해방 이후 고통의 재현과 병리성』, 『어문논총』75, 2018, 233-258면.
- 박은태, 『이청준의 1960년대 소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28, 2008, 256면.
- 박인성, 『이청준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남성 동성사회성 연구』, 『현대소설연구』75, 2019, 5-38면.
- 박진영, 『1960년대 문학주체의 형성과 문체의 변화』,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5(1), 2014, 180-181면.
- 서영채, 『가해자의 자리를 향한 열망과 죄책감』, 『한국현대문학연구』50, 2016, 417-452면.
- 선민서, 『6.25 참전자 혹은 타락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 『현대소설연구』79, 2020, 339-367면.
- 송기섭, 『〈병신과머저리〉의 내면성과 아이러니』, 『현대소설연구』41, 2009, 159-186면.
- 오윤희, 『이청준 소설의 직업 윤리와 소설 쓰기 연구』, 『우리말글』, 2005, 295-318면.
- 우찬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불안의식 연구』, 『어문연구』33(2), 2005, 193-196면.
- 이광호,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시선과 광기의 정치학』, 『인문학연구』43, 2012, 210면.
- 이현석,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성적 모티프의 담론화 방식 연구』, 『현대소설연구』38, 2008, 293-319면.
- 장영우, 『경험적 사실과 허구적 진실』, 『동악어문학』52, 2009, 267-291면.
- 정혜경,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액자소설의 변이형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14, 2000, 325-348면.
- 한순미, 『한 소설자의 심리적 기원에 관한 고찰』, 『어문논총』16, 2005, 289-308면.
- 홍용기, 『소설 주체의 탐색방식 연구』, 『인문학연구』76, 2009, 137-154면.

홍준기, 『폭력에 대한 정신분석적 성찰: 개인과 사회 속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식의 비평』18권, 2015, 83-103면.

이정우, 『사건의 철학』, 그린비, 2011.

Kristeva, Julia, 박선영 역, 『정신병, 모친살해, 그리고 창조성: 멜라니 클라인』, 아난케, 2006.

Laplanche, Jean · Pontalis, Jean-Bertrand, 임진수 역, 『정신분석사전』, 열린책들, 2005.

Segal, Hanna, 이재훈 역, 『멜라니 클라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Stumpf, Samuel Enoch · Fieser, James, 이광래 역,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열린책들, 2004.

<Abstract>

The problem of subjectification and the search structure
of the primal scene of Lee Cheong-jun's novel
—Focusing on the early 1960s short novels “Discharge from the
Hospital”(『퇴원』) and “Idiot and Nerd”(『병신과 머저리』)

Jeong, Yeon-Hee

Lee Cheong-jun's short stories in the early 1960s, “Discharge from the Hospital”(『퇴원』) and “Idiot and Nerd”(『병신과 머저리』), were examined. In the analysis of the two works, attention of study was paid to two points. The first is the narrative structure that traces the primal scene of trauma. The second is the issue of subjectification in which social reality and individual lives negotiate with each other. Regardless of whether they unfold on a personal level (“Discharge from the Hospital”) or a social and historical level (“Idiot and Nerd”), the characters always have the question of ‘how to live’, and that the individual is always powerless. It is a topic that runs through the two novels. The pain and wanderings that the characters suffer in the process have their own fictional meaning. It doesn't have to be resolved or healed, it's dictated by the possibility of keeping existential questions sharp and orienting one's life for the better.

The two works of “Discharge from the Hospital” and “Idiot and Nerd” show wandering and anguish faced with the problem of one's life, ‘how to live’, with a character strongly conscious of calling of the Other. It has to do with the question of how helpless individuals live their lives at their own risk. The principle of individual subjectivity implied here implies the

fierceness and depth of existential reflection that regards oneself as a part of reality. This is the central theme that forms the basis of Lee Cheong-jun's novel, and the two novels are even more special in that they are early works that place them in the foreground.

Key words: "Discharge from the Hospital"([퇴원]), "Idiot and Nerd"([병신과 머저리]), Subjectification, search structure of original experience, serialization, calling of The Other, helpless individual, recognition of aggression

투 고 일 : 2020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20년 11월 24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12월 26일